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주일

제35권 8호(나해) 2015년 1월18일

[묵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

흔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are you, God?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고 하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함께 머무십니다.

당신이 머무시는 곳,

그 곳에는 약자와 가난한 이가 울고 있고,

병자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형제가 매 맞고 갇혀 있고,

소외된 이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 오 -

petrus3@hanmail.net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1) 은사의 오해와 남용

성령의 은사는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신앙 쇄신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은사의 본래 목적은 잇은 채, 오직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욕심에서 은사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을 넘어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신자들은 “이상한 언어의 은사를 받았으며 남들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마치 자신이 예언자가 된 양 미래를 점쳐 주기도 한다. 치유 기도를 해 주면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기이한 행동이라는 쪽정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 선을 위하여” (1코린 12,7),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 (1코린 14,4,12; 에페 4,11-16 참조)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만족보다는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1코린 14,5 참조) 은사를 청하고, 주어진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개인의 만족과 이익만을 목표로 은사를 청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은사의 본래 목적을 오해하는 잘못된 행태다. 일찍이 바오로 사도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남겼다. 그는 모든 신자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신령한 언어는 개인의 성장을 도울 뿐이지만 예언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1코린 14,1-5 참조). 아울러 그는 신령한 언어를 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누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았더라도 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1코린 14,26-40 참조).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은총의 선물로써 교회를 도와주신다 (1코린 12,4-11 참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선사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풍요롭게 가꾸신다. 그러므로 특정한 은사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사는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므로 감사와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례적인 은총은 함부로 간청하지 말아야 하며, 지레 그러한 은총에서 사도적 활동의 결실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계속>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사무엘 상(Samuel) 3,3ㄴ-10,19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코린도1서(Corinthians) 6,13ㄴ-15ㄱ,17-20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요한(John) 1,35-42

영성제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241	200
봉헌	409	269	264
성체	291	284	281
파견	야곱의 축복	214	181

믿음의 길, 기꺼이 떠나 바라보는 것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기에 상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첫 출발점은 바라보는 것이며, 기꺼이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라자로와 부자의 이야기 중 부자가 라자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어떤 연유인지 알 것 만 같습니다. 바라보는 이 행위가 그리고 그 초점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해주며, 나아가고 있는 방향일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 안에서, 믿는 이들도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예수님의 자리로 대체하거나, 자신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벗어나지 못하게 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우리는 가끔 무기력합니다.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는 메말라 갑니다. 자신 안으로만 숨어든 시선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또한 내가 익숙한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사람과 현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민감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적 의식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마주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과 요한의 시선처럼 민감한 눈으로 볼 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하여 “와서 보아라.”(요한 1, 39)고 이끄십니다. 또한 제1독서 말씀의 사무엘도 자신의 안락한 침상을 걷어내고 그분께로 향합니다.

믿음의 길은 늘 머물지 않고 자기의 것을 떠나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머물지 않고 떠나서, 그분과 마주한 이들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향했던 우리들의 인생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임을 놓치지 않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일치 주간입니다. 갈라진 형제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형제자매로서 그분의 모습을 닮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인한 알베르토 신부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

많은 것에 용기가 필요하더군요.

국어사전에 용기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길을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필요했지만

용서를 청할 때, 잘못을 시인할 때,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많은 용기가 절실했습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미영 미카엘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 25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월)저녁7시30분(새벽미사없음)
- ◆ 요셉회 모임
 - 오늘주일 (18일) 11시 미사후 강당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신 영세자 첫 고해성사
 - 일시 : 1월18일(주일)~1월31일까지 미사 전,후
 - 대상 : 12월21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휴강
 - 오늘 주일(18일)은 마틴루터 킹 주니어 데이 연휴로 수업이 없습니다
- ◆ LA대교구 지문채취안내
LA 대교구 방침에 따라 본당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문채취를 해야 합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므로 꼭 사무실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 일시 : 2월7일(토요일)10시~1시40분, 오후 3시~5시20분
 - 장소 : 강당
 - 준비물 : 지문채취시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발급 ID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펄백, 제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 주일학교 사순 피정학부모설명회
 - 2월 8일 (주일) 오후1시 성전
- ◆ 2014년(작년) 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감사헌금, 특별목적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 우송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내역은 인컴텍스리턴(개인세금보고)을 위한 현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소변경으로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18일(주일) * 토서 1,3반 : 비빔밥 (\$3)
* 주일학교 : 수업 없음(마틴루터킹데이 연휴)
 - 1월25일(주일) * 토남1,2반 : 소고기 무국(\$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9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태만 김영덕 김옥보 김원호 김유미	성전헌금	고천용 권태만 김영덕 김옥보 김원호 김정엽
	김윤진 김정엽 김형순 노혜숙 민성원 박영희		노혜숙 신경훈 안태갑 원건희 이근모 이일길
	반정이 서정진 송재훈 신경훈 신윤원 안태갑		이효세 최기남 최이원 홍광선
	엄영희 원건희 윤분아 이근모 이원형 이일길		
	이효세 정광미 최기남 최이원 홍광선		
	합계:\$2,475		합계 : \$1,165
주일미사 헌금 : \$2,834		감사헌금: \$700 (성낙호,익명)	

◆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 1월 25일까지 20% 할인 혜택이며, 2월부터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단, SAT반은 \$ 200.)
- 접수장소 : 백삼위 한국학교 교무실
- 접수일 : 1월 11일, 1월 25일 (학생 미사 후)

◆ 백삼위 한국학교 1 학기말 시험 성취도 평가 우수자 시상식

1월 11일 백삼위 한국학교 1학기말 시험을 통하여 성취도 평가 우수자를 시상합니다

- 시상식 : 1월 25일 학생 미사 중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성당 커피교육안내

- 일시 : 2월 1일(주일) 낮 1시~5시
2월 2일 (월) 저녁 6시~10시
양 일중 하루를 택하여 강의를 들으시면됩니다.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날교육후 10회 실습을 합니다.
- 교육비 : \$200(당일지불)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 90007
- 문의 : 이냐시오카페 봉사자 ☎(323)731-4433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옥찬 수산나 991-4838 1 / 18(일) 오후1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1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동수 베드로 218-7340 1/10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김인성 스테파노 991-8558 1/10(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7(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625-3312 1 / 23(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 / 9(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 / 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424)232-8522 1/12(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1/10-1/11 팝스프링 온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 리비나213-700-6983 1 / 16(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 9(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 명 베드로 974-2211 1 / 17 (토)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 / 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요셉회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1시

[길을 찾는 그대에게]

밖으로 보이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옷이나 가방, 신발 등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남들과 비교를 하고 부러워합니다.

신앙인이란 이런 것쯤은 무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잘 안됩니다.

☞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만 뒤처지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지난여름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 때 말씀하신 ‘피상성의 유혹’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피상성이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성질’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 유혹은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처럼 참된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정신을 쏟게 하여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올해 우리 교구의 사목지침인 ‘문화 복음화’ 역시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사목지침은 ‘물질주의적 문화와 과도한 소비지향 문화, 그리고 외양을 중시하는 문화 등은 근원적인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무작정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속은 텅 비어 버리고 맙니다. 삶의 참 기쁨은 그 뿌리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그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런 피상적인 것들은 외면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 홍경완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기도의 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수없이 흔들려야 함을 정말로 잘 알지만 흔들리는 시간을 버터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학년 1학기, 이전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목표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확실한 목표를 세웠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떨어졌고, 평소라면 성적 때문에 상처받았어도 금방 털고 일어났겠지만 기대가 큰 만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기대와 다른 이들과 한 약속이 무거워졌던 그 시간은 3년 동안 가장 흔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문득 안 좋은 미래가 상상될 때 “주님, 제게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제 손 꼭 잡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불안감은 가라앉고 든든함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대학의 1차 합격자 발표에는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가 자꾸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 조금은 웃기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라며 ‘합격’이라는 글자가 쓰인 흰 종이를 건네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합격’이라는 글자만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확실한 보장도, 미래에 대한 예언도 아닌 위안과 위로였고,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그 시간이 학업에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 미사에 나오지 않거나 점심시간에 묵주기도를 하기 위해 경당을 찾기보다는 정독실을 찾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마주칠 때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조바심을 저도 느껴왔기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신앙생활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조바심이 생긴다면 신앙 생활이 여유와 평온을 느끼고 또한 위로 받으며 다시 한 번 미래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친구가, “기도하는 네 모습을 보고 울컥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고 저를 위해 기도한 적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잠시라도 좋으니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노력 없이, 터도 없는 황무지에 새로운 집을 지어 주시길 바라는 것은 힘들지만 힘이 좀 모자라 미완성된 집에는 완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 장서현 마리안나 / 데레사 여고 3학년

인생은 파도 타기다

한 인생을 살아보면 마치 파도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열심히 파도타는 연습을 한 사람은 잘 탄다.

그러므로 풍파가 심한 인생의 파도를 잘 타려면 늘 연습을 해야 한다.

어떤 연습 ...

하느님 안에서 내 인생을 묵상하는 연습이다.

— 小花 글나라 —